

# 소공연, 배동욱 회장 탄핵... 김임용 부회장 직무 대행

총회서 29명 중 24명 해임 찬성  
노조 “탄핵 환영, 고발조치 지속”  
배 회장 “법적 대응, 회장직 수행”



김임용(앞줄 왼쪽 다섯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앞에서 열린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 탄핵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3개월 가까이 내홍에 휩싸였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정상화로 가기 위한 발판을 새로 놔다.

도덕성·리더십 부재 등으로 분란을 일으킨 배동욱 회장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임시총회를 열어 탄핵을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소공연은 내년 2월 새 회장 선거 전까지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게 됐다.

하지만 배 회장은 이번 탄핵 결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회장직도 계속 수행하겠다고 공언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소공연 비대위는 15일 오전 서울 강남 S컨벤션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 해임안을 상정하고, 정관에 따라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의결했다.

총회에서 탄핵이 의결됨에 따라 배 회장은 이날 업무가 정지됐다.

소공연 정회원 49명 가운데 이날 총회에는 위임 5명을 포함해 29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배 회장 해임에 2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소공연 수석부회장이자 비대위를 주도한 김임용 비대위원장은 “사리사욕을 앞세워 배우자와 자녀가 운영하는 꽃집에 근조화 일감을 몰아주고, 자신들의 측근들을 지역회장 직무대행에 임명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직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측근 전진배치, 노조원 강등 등 온갖 전횡을 일삼아오며 검찰에 고발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엄중경고까지 받은 배동욱 회장을 회원들의 힘으로 탄핵시켰다”고 밝혔다.

배 회장의 전횡에 맞서 그동안 검찰 고발, 중기부 진정, 대안론 호소 등을 해 온 소공연 사무국 노조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 노조는 이날 별도로 서울 대

방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합회를 사유화하기 위해 전횡을 일삼아 온 배 회장에 대해 소공연 내부 구성원들의 정상화 노력이 모여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소공연이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로 거듭나는 일에 새 집행부와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노조는 특히 앞서 배 회장을 대상으로 한 두 건의 검찰 고발을 취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배 회장이 탄핵됐지만 시스템화된 소공연을 만들고, 이같은 일들이 연합회 내에서 재발되지 않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게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조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공연 사무실 앞에서 배 회장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소공연

노조의 판단이다.

회장이 공식으로 남으면서 소공연은 내년 2월 회장 선거때까진 정관에 따라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이끌어갈 계획이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소공연 앞에서 기자회견을 별도로 갖고 ▲지난 4월 23일 배 회장 취임 이후의 모든 일들을 원점에서 재검토 ▲깨끗하고 투명한 소공연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재정비 ▲소상공인들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해 나가기 위한 추가 노력 등 3가지 원칙을 밝혔다.

아울러 김 대행은 이번 내용을 통해 간극이 커진 소공연 회원들간 관계를 복원하는데도 많은 공을 들이겠다고 전

했다.

이런 가운데 소공연 비대위는 이날 임시총회를 치르면서 다소 설익은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초 알려진대로 56명이 아닌 49명을 투표 과정에서 정족수로 최종 판단했고, 4명은 또 총회 시작 이후 뒤늦게 참석 성원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또 위임장을 받아 투표권이 없는데도 정회원 1명은 표를 행사한 것으로 개표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정회원으로 간주하지 않은 7명은 가입 당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회원이 됐기 때문에 정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일부는 회비를 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다만 이번 총회를 앞두고 반대세력의 방해가 많아 애초에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는 변호사와 협의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탄핵 당사자인 배 회장은 비대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임시총회가) 불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회장으로서의 권한은 계속 행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손병두 “2차 코로나 대출확대·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차 코로나 대출 2000만원 한도 개선  
23일부터 12개 시중은행 통해 공급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2차 코로나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1차, 2차 코로나대출을 이미 받은 분들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개선된 2차 코로나대출은 오는 23일부터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된다.

에 대비하고 방역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유동화회사보증(P-CBO) 한도를 확대하고 인수비율을 완화한다. 기업당 한도는 중견기업 700억원 대기업 1000억원에서 중견 1050억원, 대기업 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인수비율도 1.5~9%에서 1.5~6%로 낮춘다.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한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주부터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실무준비단’이 본격 가동된다”며 “펀드세부구조 설계,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등 정책형 뉴딜펀드의 실행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해 9

월중에는 절차별 세부계획등을 금융권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1차 코로나대출을 통해 14조2000억원, 2차 코로나대출을 통해 6521억원이 지원됐다.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2조6000억원이 집행됐고,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조3000억원이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보증으로 총 87조원(144만4000건)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은 111조9000억원(56만건)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1조4000억원(114만6000만건), 시중은행을 통해 96조4000억원(83만2000건)이 집행됐다.

/나유리 기자 yul115@

## 8월 수출물가 0.2% ↓ 년 달만에 하락세 전환

지난달 수출물가가년 달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수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전월 대비 수출물가는 지난 5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난달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8% 내려 15개월 연속 하락했다.

농림수산물 0.1% 상승한 반면 공산품은 0.2% 하락했다. 공산품 중에서도 특히 섬유 및 가죽 제품(-0.9%)과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0.7%), 전기장비(-0.7%)의 하락 폭이 컸다.

환율 효과를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5.4% 하락했다.

8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1%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5% 내렸다.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로 0.4%, 전년 동월 대비로 9.4% 하락했다.

/안상미 기자

## 상반기 금융민원 4.6만건... 대출·사모펀드 문의 급증

전 업권에서 금융민원 증가  
은행 민원 전년동기비 30% ↑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6000건 가까이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출상환이 어렵다는 호소부터 사모펀드 환매지연에 따른 민원까지 전 업권에서 민원이 늘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 5922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15%(5998건) 증가했다.

은행 민원은 61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1433건) 늘었다.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른 대출 관련 여신 민원이 55.7%, 사모펀드 환매지연으로 ‘방카·펀드’ 민원이 439% 급증했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이 33.1%로 가장 높고 ▲예·적금 11.9% ▲방카·펀드 10.4% ▲인터넷·폰뱅킹 7.6% 등의 순이다.

중소서민 민원은 905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601건)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대부업자, 상호금융민원은 늘었지만 상호저축은행과 할부

금융사 민원은 줄었다.

생명보험 민원은 1만8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02건) 늘었다.

중신보험 불완전판매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의 민원이 29.9%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보험모집’의 비중이 53.7%로 가장 높고 ▲보험금산정·지급 17.5% ▲면·부채결정 1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 민원은 1만61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1367건) 증가했다.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늘면서 ‘보험금산정·지급’ 및 ‘면·부채

결정’ 유형이 같이 늘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산정·지급’이 43.3%로 가장 높았고 ▲계약성립·해지 10.2% ▲보험모집 7.5% ▲면·부채결정 6.7% 등의 순이다.

금융투자민원은 37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2%(1695건) 급증했다.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모두 민원이 늘었다.

증권회사 민원은 23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9%(1059건) 증가했다. 사모펀드 및 WTI원유선물 상장지수채권(ETN)의 괴리를 관련 민원 등으로 ‘펀드’ 및 ‘파생’ 유형의 민원이 크게 늘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0@

